

“물건보다 일할 사람이 없어 잠녀 후계자라도 키워야주”

[제주잠녀] 102.<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73)제주시 도두동

등록 : 2008년 01월 21일 (월) 17:57:51
최종수정 : 2008년 01월 21일 (월) 17:57:51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한때 '양식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옥했던 도두 바다.

가슴 넉넉하게 품어주던 바다. 도두 잠녀들이 기억하는 바다는 지금 '반'만 남아 있다.

벌써 10년이 된 일이지만 옛 향수를 지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다.

가매기보말(말고동)이 많아서 '가매기원'이라 불리던 곳도, 포구로 드나드는 배들이 입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표지석으로 삼았던 다금바리여도, 도두봉 서쪽 제주 옛 재래식 화장실을 담은 통시여도 축항과 방파제가 만들어지며 자취를 감췄지만 잠녀들의 기억 속 그 바다는 여전히 푸른 빛으로 출렁이고 있다.



도두봉 뒷원

바다와 연결된 삶

‘바다와 도두 사람들의 삶은 연결돼 있다. 그 중에서도 잠녀 작업은 도두동 여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지난해 2월 발간된 「도두동지」의 한 부분이다.

한 때 “도두 바다는 모두 ‘양식장’”이라고 했을 정도로 비옥한 바다였다. 그래서일까.

“갈수록 잠녀들의 나이가 많아져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말 대신 “어떻게 젊은 잠녀를 양성할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 먼저다.

농민후계자나 어민후계자처럼 ‘잠녀 후계자’를 양성하면 안되겠냐는 등 구체적이다.

“물건이 없어 힘들면 한달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잠녀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면 된다”며 “갈수록 잠녀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데 이제는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도두동 잠녀는 39명 이 중 20~25명이 상시 물질 작업을 한다. 40대가 7명, 50대가 11명이나 되는 등 다른 어촌계에 비해 ‘젊은’편이다.

아직까지 사수포구 동쪽은 먹이가 좋아 양식장 역할을 특특히 하고 있다.

사수포구 양쪽으로 천초바다와 툃바다가 있다. 지난해 천초만 350포대(1포대당 30kg 기준) 물량을 작업했다. 툃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소라TAC물량도 5000kg 수준. 잡녀 1명당 한해 평균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 이내 '잘해야...'라는 말이 뒤따른다.

“시세가 좋을 때는 천초나 툃을 생초로 팔기도 했지만 지금은 작업하는 데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물량도 적어 벌이가 안 된다”며 “예전하고는 달라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바다신을 모신 소독모실

매립 후,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키우다

옛날 도두동은 자연어항을 기반으로 테우로 어획 활동을 했다. 이곳을 대표하는 시설이 도두항인 것만 봐도 어업 활동에 대한 의존도를 알 수 있다. 국가어항으로 승격되기까지 550년을 소규모 자연어항이었던 도두항은 지난 1998년 현대식 어항으로 탈바꿈했다. 시설현대화는 대신 6만6116㎡가 넘는 어장을 내줬다.

처음 바다를 잃은 상실감은 컸다. 하지만 지금은 매립을 통해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데 이견이 없다.

1990년대 95868㎡가 넘는 해안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용두암에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개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업과 농업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민박 등 관광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매립지에 수산물가공업체가 하나둘 들어서 자리를 잡으면서 나름대로 재도약을 기대하기도 했다.

오래물축제도 그 일환이다. 마을청년회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인책 차원에서 시작했고, 아직 미완이지만 성과도 얻고 있다.

김용식 도두동 어촌계장은 “이곳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제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능성 안에는 규모화와 내실화가 요구되는 오래물축제도 포함돼 있다. 사수포구 인근 양식장에서 제법 자리를 잡고 있는 전복 총패도 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13억원 상당이 투입되는 ‘수산물판매시장’. 해녀회와 어부회, 도두1동마을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될 수산물판매시장에는 잡녀 등이 직접 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코너 외에도 식당 등 다양한 부대 사업장이 들어서게 된다.

도심 해안도로인 탓에 오가며 눈에 익은 바다지만 속내는 오히려 낯설었다. 그래서 바다다. 답은 없지만 원하는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다이기 때문이다.

아직 바다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눈에 보이는 바다만 놓고 가타부타하는 것이 미안해진다.